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말하기

올해 진행된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사업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들과 흥성의 선배 농가들을 1:1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도시 청년들이 선배 농가의 1년살이를 함께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골의 삶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우리 농장도 선배 농가의 하나로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나는 민간 코디네이터 자격으로 기술센터를 도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이 매끄럽도록 힘을 보태는 업무도 담당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 교육생은 모두 14명이었다. 이 중 11명은 농사 분야 대상자이고 나머지 3명은 농촌형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농촌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청년들의 경우 직접적인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드물다. ‘나는 00 농사를 지어야겠다.’ 내지 ‘나는 00 창업을 해야겠다.’는 식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굳이 귀농이나 귀촌이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농사와 시골을 컨텍스트로 하는 다양한 활동의 실례를 보여주고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귀농 귀촌의 구분에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현재 중앙 정부의 탈도시 지원 정책은 대부분 귀촌이 아닌 귀농 분야에 몰려 있다. 기술센터 내의 귀농귀촌팀도 귀촌보다는 귀농에 더 재정과 관심을 투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관심사는 귀농보다는 귀촌에 오히려 쏠려 있다. ‘농촌에 살려면 귀농이 우선이고 농사가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농사 구조라는 게 여성, 청년, 소농이 참여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호주식의 대농, 기업농을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도 이런 경향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농부’를 인큐베이팅하기란 불가능하다. 청년들에게 농부가 되어 밥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일부의 청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시골에서 꿈꾸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농부’라는 단어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시골에 기반을 두고 시도되는 다양한 활동 전반을 농부의 영역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농업 생산활동은 아니더라도 시골 기반의 청년 생태계가 형성되어 다양한 청년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러한 의미장의 확장은 오히려 좁은 의미의 청년농부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처방보다는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지금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 때이다.

청년농부의 시골 정착은 누구 하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사업명에도 ‘시스템 구축’이라는 표현이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다. 올해 1:1 매칭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 교육생이 어느 선도 농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청년의 1년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선도 농가들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분들이었고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대체로 높기는 했다. 하지만 이렇게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청년농부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벌써 끝이 난다. 2020년에도 다른 이름의 사업으로 연

결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좋으련만 작으나마 거둔 3년의 성과가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 진행의 마지막 해인 내년은 향후의 또 다른 청년 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청년 농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우선 청년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청년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보니 청년 귀농귀촌은 새로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기존의 가치나 방식으로 청년들을 나누고 그것에 가두려 하면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나 사업 진행이 되기 어렵다. 청년의 힘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움이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분명 침체되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청년에 관한 전문가는 그 누구도 아닌 청년이 되어야 한다. 분명 경험이 부족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으나 그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내년 사업 진행의 주제로 세우고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에 추가하여 필요한 시스템은 청년 공간의 확보이다. 낫선 시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사실 단순한 공간의 의미를 넘어선다. 청년들의 커뮤니티에는 미래의 시장 질서가 숨어 있다. 그동안 개인적인 부를 쌓고 이에 기반해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데 익숙했다면, 미래 세대는 공유 자산을 기반으로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 세대들의 장점도 이러한 공존과 연대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지금의 농촌은 위기라는 말을 꺼내기도 식상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동 인구의 고령화, 농촌 가계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맞물려 후계농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농촌은 청년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하지만 청년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시골에 필요한 부분을 청년들로 채우려는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청년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우선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조금 더 편하게 펼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최소 3년의 여유를 청년들에게 주고 이후 농촌 공동체에 서서히 스며들도록 안내하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했으면 한다.